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7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전기차 400대(승용 211대, 화물 189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35억 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225대(승용 94대, 화물 13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2회 나눠 상반기 180대, 하반기 4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차량 1대당 지원금액은 승용은 최대 1350만원, 1톤 화물은 최대 1800만원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다. 풀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안내 및 보조금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 본격 개시

부안군은 올해도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질병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24년도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축산단체,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구입 등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비로 7억 1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이달부터 예방백신 및 약품 등을 시기별로 구입 후 적기에 농가에 공급해 전염병 발생 방지 및 면역력 향상을 통한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전히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이 축산농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축산 경쟁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11~29일 신청접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

지원금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5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6일 오전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힘을 합치기로 '고창군·금호고속(주)·고창군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힘 모은다

고창군-금호고속-고창군의회,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이 금호고속(주), 고창군의회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이계영 금호고속(주) 총괄사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이 참석해 '고창군·금호고속(주)·고창군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호고속(주)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고속버스, 직행버스 등을 운영하는 항토기업이다. 특히 연인원 750만명의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광주광역시 유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과 금호고속(주)은 광주 유스퀘어 내에 고창군 미니농특산물 판매장을 열고 땅콩과 고구마, 풍천장어 등의 상품을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

향후 금호고속(주)이 보유·운영 중인 터미널(목포종합, 순천종합, 여수종합, 전주고속, 공주종합, 금산시외) 등에서 고창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계영 금호고속(주) 총괄사장은 "수박을 비롯해 멜론, 땅콩, 풍천장어 등 고창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금호고속의 운송·유통망이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우수 농특산물이 금호고속(주)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 및 소개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고창군과 금호고속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도시 고창으로 수학여행 오세요"

수학여행 버스 1대당 3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유구한 역사문화와 청정자연의 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선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 초·중·고 1만2,000여개의 학교에 심덕섭 고창군수의 초청 서한문을 발송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보물 7개를 간직하고 있는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대자연의 숨결은 물론, 인류가 이룩해온 문명의 위대함을 느끼기에 최고의 도시다"고 홍보했다.

특히 고창군은 이달부터 유네스코 관련 유료 관광지를 1개소 이상 방문하는 수학여행단과 현장체험학습단 등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1대당 30만원씩 1일 100만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동화농민역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으면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가지를 품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전국 초·중·고 1만2,000여개의 학교에 심덕섭 고창군수의 초청 서한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고창 갯벌체험. (사진=고창군청 제공)

또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부터, 농악과 판소리, 무장기포지 등 교과서에 서만 접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고, 그 속에

서 우리네 식탁에 오를 먹거리를 키워내기 위한 농어민들의 땀과 열정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여행지' 고창을 기억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7일부터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 위생지도

정읍시보건소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간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

생 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더불어 시 보건소는 6일 한솔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열린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구마·고열량 함유 식품의 과잉섭취 주의와 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4년 연속 자전거 보험 가입

정읍시는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최초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올해도 오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

보장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